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조선인민군 전선장거리포병구분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또다시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3월 9일 조선인민군 전선장거리포병구분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또다시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현지에서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박정천 육군대장과 전선포병부대 지휘성원들이 맞이하였다.

또다시 진행된 화력타격 훈련은 전선장거리포병부대들의 불의적인 군사적대응타격능력을 점검하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감시소에서 총참모장에게 전투정황을 제시하시고 훈련을 지켜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지켜주신 훈련혁명의 불길, 전투력 드높이 혁명의 총창을 더욱 날카롭게 사격구령이 떨어지자 일제히 섬멸의 강화의 불바람속에서 멸적의 기세 버려가고있는 용감한 전선포병들은 포문을 열고 불을 토하였다.



전투실력을 힘있게 과시하며 백발백중의 명중포성을 높이 올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훈련 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전선장거리포병구분대들의 작전동원준비상태가 완벽한데 대하여 높이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인민군대에서 포병훈련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 한다고 하시면서 포병훈련의 질을 높이고 실전화하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포병의 위력이자 우리 군대의 위력이라고 하시면서 인민군 포병무력을 누구나 두려워하는 세계최강의 병종으로 강화하는것을 주체적혁명무력건설 로선의 제일중대과업으로 내세우고 계속 즐기차게 투쟁해

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조선인민군 제7군단과 제9군단 관하 포병부대들의 포사격대항경기를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3월 12일 조선인민군 제7군단과 제9군단 관하 포병부대들의 포사격대항경기를 지도하시였다.

포사격대항경기는 조선인민군 제4차 포병대회에서 제시된 조선로동당의 포병무력강화방침을 관철해가고있는 군단별 포병무력의 싸움준비실태를 불의에 선택적으로 검열판정하여 전반적 포병무력을 다시한번 각성시키며 포병 훈련의 형식과 내용, 방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훈련을 실전화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전개하는 불씨를 지켜 올리는데 목적을 두었다.

경기는 추첨으로 정한 사격순차에

따라 군단들에 장비된 각종 구경의 포들로 섬목표를 사격한 다음 사격성과 화력임무수행에 걸린 시간을 종합하여 승패를 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감시소에서 포사격대항경기진행순차와 방법에 대한 보고를 료해하시고 경기를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지시에 따라 군단장들이 감시소에서 포병화력을 직접 지휘하였다.

군단장들의 사격구령이 내려지자 하늘땅을 진감하는 포성이 울부짖고 섬멸의 포구마다에서는 일당백사상이 그대로 불줄기가 되어 내뿜었으며 목표점은 순간에 불바다로 변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총참모장은 경기 결과에 대한 총참모부의 평가를 보고

드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불의에 조직된 군단별 포사격대항경기에 참가한 용감한 포병들의 전투적열의와 자세에 대하여 치하하시면서 포병 훈련의 형식과 방법을 부단히 연구하고 실전화할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훈련요구에 대하여 다시금 설명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모든 포병들이 높은 기동력과 타격력을 갖추려면 이러한 훈련을 정상화하며 앞으로 군단별 대항경기를 자주 조직하여 지휘관으로 부터 병사에 이르기까지 승병심을 불러 일으켜주는것이 좋다고, 총참모부가 앞으로 오늘과 같은 방식의 훈련을 자주 조직해야 전반적무력의 지휘관들이 우리 당의 포병중시사상을 잘 알고 포병 리용에 대한 군사적안목을 높일수

있으며 포전술과 포사격에 정통하게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늘 강조하는것이지만 훈련에서의 사격결과만 단순한 명중확률이 아니라 우리 당의 훈련제일주의방침에 대한 지휘관들과 병사들의 관점과 립장과 태도의 반영이며 자기 당과 자기 인민, 자기 조국에 대한 충성심의 높이를 보여주는 척도로 된다고 하시면서 포병들은 포병의 위력이자 인민군대의 위력이라고 한 당의 믿음과 기대를 심장깊이 새기고 자기의 전투력을 부단히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 총열기해나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오늘의 훈련이 인민군대 전반적포병무력을 다시한번 각성시키는 계기로, 훈련열의와 승병심이 비등되는 계기로 되기 바란

다고 하시면서 현대전은 포병전이며 포병싸움준비이자 인민군대의 싸움준비라는것을 항상 명심하고 모두가 포병무력강화에 자각적으로 떨쳐나설데 대한 문제, 모든 포부대들의 기동력을 최대한 높이고 포사격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철저히 보장하며 구분대들마다에서 화력복무동작을 규정대로 전투적맞이 나게 진행하도록 훈련요구성을 높일데 대한 문제, 현재 장비된 포들의 전투동원준비를 항시적으로 완벽하게 갖출데 대한 문제,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훈련형식과 내용, 방법을 부단히 실전화하는 방향에서 개선할데 대한 문제 등 주체적 포병무력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군사적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본사기자